

다시 원칙을 지키는 깃발을 세워 올리며

학문 연찬과 교수활동에 매진하시느라 오늘날 한국의 타락한 정치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실천적 계기가 없이 유야무야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불편해 하셨을 교수님께 전하는 낭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6월의 월드컵 때문에 급기야 1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전무하다시피한 재벌 2세가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코미디 속에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혼란에 당혹해하고, 아울러 '하늘이 두 쪽 나도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공언하는 특정후보 부인의 망발을 보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식의 정치보복의 예후에 전율합니다.

금년 말의 대선 때문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이합집산과 유언비어식 폭로, 그에 편승한 조중동의 왜곡 보도가 통탄할 지경이고, 민심은 정치에 대한 혐오와 냉소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애오라지 국민의 정부에 기대했던 동서화합은 오히려 그 갈등과 골이 더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 층과 서민 소외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위화감은 날로 심화하였고, 결국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지 못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배반감으로 전라도는 숨을 죽여야 하는지, 이제야말로 우리 교수들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이곳 광주·전남은 동학혁명 이후 항일 광주학생운동과 군사독재 시대의 광주민주항쟁등 민족사의 중대한 고비마다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실천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온 의로운 원칙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남은 정치적 무력증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특정 언론의 횡포에 휘둘러 그들의 입맛대로 "대통령 만들기"에 굴복해버린다면, 우리들의 정치적 목표는 다만 정권교체로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전라도는 다시 정치적 변방으로 돌아갈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정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다시 민주화의 깃발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그만이 개혁을 담지할 수 있는 민주화의 정통성과 원칙을 지키고 있고, 진보적 통일관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의 도덕 불감증을 깨고 서민 지향의 개혁성향을 지녔으며, 그리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참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동서 화해와 남북 상생의 평화통일을 싹틔우고,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신과 원칙을 존중해 온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노풍의 전국적인 재확산을 위해서는 비단 이 지역 지식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식인이 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교수님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 후보 지지운동을 영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8일

노무현을 지지하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수 일동